

한국지방신문협회 공동 칼럼

光日春秋

자살하는 나라

anton sotz
코리아컨설트 대표

최근 고(故) 조성민씨의 자살로 전국이 소躁에 빠졌다. 그의 전 아내였던 고 최진실과 그녀의 남동생 죽음에 이어 아직 어린 두 아이들을 남겨놓은 채였다. 지난 몇 년에 걸쳐 한국의 많은 부자와 유명인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그뿐만이 아니다. OECD 국가 중 한국은 자살률이 가장 높은 국가 중 하나이며, 현재 10대와 20대는 사망 이유에 자살이 큰 비중을 차지한다. 사고나 병이 아니라 불행과 우울증이 젊은이를 죽음으로 몰고 있다니 도대체 왜 이러는 걸까?

나는 개인적으로 이 테마를 폐나 오랫동안 생각해 왔다. 그 결과, 이는 가치에 대한 문제라고 결론지었다. 한국인은 그들의 현실에서의 가치와 전통적인 가치들을 놓아버림으로써 한 개인의 마음과 어쩌면 온 나라에 무엇으로도 쉽게 체워질 수 없는 커다란

공허감을 안아 버린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돈이나 명예로도 채울 수 없다.

'위기에 빠진 주부들'(Desperate Housewives)이란 TV 시리즈 중 한 인물이 주인공에게 행복에 대해 물어보는 장면이 있다. 나는 본래 이런 TV 시리즈를 즐겨보는 사람이 아니다. 하지만 곱씹을 수록 평화로운 학적인 내용이 담겨 동동 이 장면은 내 머릿속을 떠나질 않았다.

"왜 그와 결혼했나요?"

"왜냐면 그가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주겠다고 약속했거든요."

"결혼 후 그는 당신에게 원하던 모든 것을 주었나요?"

"네, 그는 그렇게 했지요."

"그런데 왜 당신은 여전히 불행한거죠?"

"왜냐면 제가 원했던 모든 것들이 틀린 것들이란 걸 깨달았거든요."

이 짧은 장면은 '왜 많은 것을 이뤘다고 생각되는 우리가 부러워하는 사람들이 비슷한 방식으로 불행하고 기력하게 생을 마감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하나님의 단서를 제공한다. 진정 원하는 것을 갖게 된 후, 결국 그것이 자신을 행복하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결과적으로 그 것은 원하는 것을 못 갖는 것보다 더욱 최악일 수도 있다는 것이다.

상상해 보라. 당신이 원해오던 것을 모두 갖게 되었는데도 여전히 행복해 지지 않으면 어떨겠는가?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나는 이것을 그 어떤 악몽보다도 더 꿈꿔한다고 생각한다. 만약 자신이 원하는 것이 진정 원하는 것이 아니라면 결과적으로 행복해지기는 어려울 것이란 뜻이다. 또, 나는 오늘날 한국인들은 자신에게 맞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맞지 않는 걸 원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한국인은 겉으로 보기엔 그럴싸한 것들을 추구한다. 성적, 외모 등에서 아이들은 실패로 자신을 평가한다. 여자들은 성형의 칼날과 끊임없는 디아이트에 고통받지만 남보다 예뻐지기만 한다면 더욱 사랑받을 거라고 믿는다. 삶의 성공을 지불 능력이나 직장과 직위의 순위로 평가하는 사회 속에서 사람들은 불행하다고 하는 것은 놀랄 일이 아니다.

그렇다면 모두가 원하는 대로 정상에 오를 수 있도록 해주면 자살 없는 사회가 되는 걸까? 그렇다면 이 글의 맨 처음으로 돌아가는 질문에 대해 하나님의 단서를 제공한다. 진정 원하는 것을 갖게 된 후, 결국 그것이 자신을 행복하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결과적으로 그 것은 원하는 것을 못 갖는 것보다 더욱 최악일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지금 내가 갖고 있는 것이지 않는

가? 이것으로도 행복해질 수 없다면 행복하기 위해 무언가를 허고 그걸 얻었다고 해서 행복해 질 수 있을까?

나는 한국의 짧은이들이 진심으로 걱정된다. 그들은 부모의 목표에 떠밀려 살아왔고, 부의 축적을 가치로 여기는 사회 속에 적응하거나 현실의 작은 가치만을 발휘하며 살았다. 나는 한국의 짧은이들이 그들의 영혼과 마음이 빙곤한 가치와 잘못된 사회적 가치로 채워질까 두렵다.

한국은 아시아의 역동적인 과학우주가 되었다. 이는 대단한 개가이다. 이럴 때일수록 한국 국민은 자신의 삶을 정확하고 낭찰하게 볼 필요가 있다. 인생에 있어서 어떤 성공이 성공인지, 미래를 짚어질 아이들에게는 어떤 가치를 가르쳐야 하는지 생각해야 한다.

만약 내 아이에게 어떤 가치를 가르치고 있는지, 그 예가 궁금한 사람들을 위해 난 이미 아주 간단하고 단순한 대답을 하나 준비해 두었다. "아이가 이 다음에 커서 어떤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라고 물어온다면 주저 없이 답할 작정이다. "행복한 사람으로!"

※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의료칼럼

복지, '밑빠진 독'이 되지 않으려면

허정
에덴병원 원장

우리는 지난해 총선과 대선을 치르면서 본격적인 복지시대에 진입한 것 같다. 모든 정책 우선 순위가 옛날의 성장정책에서 민생복지로 전환되고 정당 및 후보자들도 무상교육, 반값 등록금을 공약으로 내세우면서 올해 복지예산이 100조 시대에 접어들어 전 국가 예산의 30%를 넘어서는 광범위 시대가 도래했다고 생각한다.

인간은 누구나 물질적으로 여유롭고 무병 장수하면서 행복한 생활을 하려는 욕망이 있게 마련이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의 복지정책 열풍은 정책방향은 올바르지만 그

방법의 조급성, 포퓰리즘, 국민의 부담 능력을 고려할 때 걱정되는 부분이 많은 것도 사실이다.

우리나라는 지난 20~30년간 눈부신 발전을 이뤘으며, 1997년 외환위기 또한 단기 간에 극복하면서 경제대국의 문턱에 진입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에는 300만 명 이상 되는 실업자와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많은 문제점에 시달리고 있다. 현재는 국가의 장래 문제에 대해 냉정하고 합리적으로 생각해야 할 시기이다.

한번 잘못된 복지정책은 그 방향을 바꾸기가 매우 어렵다. 그 예는 몇십년 전 이뤄졌던 남미의 포퓰리즘 정책이 최근까지도 자국 국민들과 세계 경제에 악영향을 미쳤을 뿐만 아니라 최근엔 남유럽, 스페인, 포르투갈, 이라리, 특히 그리스의 현상황을 볼 때도 우리는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

더욱이 그리스는 10년 전 지난 10월 대회를 개최할 때만 해도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정도의 복지혜택을 받고 있었다. 국민의

4분의 1이 국가 공무원일 정도로 포퓰리즘 정책을 지향한 결과 현재는 국민의 50% 이상이 실업자로 전락하고 길거리에 노숙자, 자살자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 이르렀다. 오늘의 유럽 금융위기가 전 세계를 위협하면서 우리나라 경제에도 심각한 면구름을 드리우고 있다.

지금 정치권에서 공약한 정책들을 볼 때 세칭 '무상'이라는 정책은 너무나 무섭고 '밑빠진 독' 같은 정책일 가능성이 높다. 예로 의료분야에서 공짜 의료급여 진료의 혜택을 들겠다. 건강보험 대상자를 제외한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게 거의 무상진료가 이루어짐으로써 일정부분 본인부담을 하고 있는 건강보험진료에 비해 입원일수나 진료액이 10배 이상 수직상승하고 있다. 이로 인해 꼭 필요한 사람에게 써야할 재원이 낭비되고, 결국에는 국가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상황을 초래하게 된다. 극단적으로 일부 환자들의 의료쇼핑으로 인해 거의 1년에 800~1000일씩 진료를 받는 사람이 있는 등 심각한 의료지출의 낭비가 나타나

고 있다.

여기엔 무상보육을 하면서 누구나 어린이 집에 털어 시키는 보육지원을 해줌으로써 너도나도 무상보육 혜택을 받으려고 아무것을 치고 있다. 개인이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문제까지 국가가 지방정부가 떠맡는 상황이 대단히 우려스럽다.

앞으로의 정책이 복지 우선의 정책이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우리는 조금 더 현명해질 필요가 있다. 즉 선택적 복지 또는 합리적인 복지정책으로 정말로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한 만큼의 선택과 집중으로 복지정책을 펼칠 필요로 복지정책을 막아야 한다.

모든 정책은 너무 서두르면 반드시 감당하기 어려운 부작용을 낳는다는 것이 역사의 교훈이다. 부디 정책을 입안하는 정치권과 행정가들은 오늘의 사탕발림식 정책보다는 현재가 조금 힘들더라도 모든 국민이 조금씩 절약하면서 참여해, 미래를 기약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을 제시하길 바란다.

기고

꽃은 누군가와 함께하기 위해 피고 진다

이종범
전남도교육청 홍보담당관

나날이 새롭게 발전하는 현대사회에서 변화는 생존의 법칙이다. 그리고 그 변화의 시작은 항상 처음이라는 단어로 시작된다. 얼마 전 새해의 시작과 함께 전남도교육청은 조직개편으로 홍보실이 확대되고, 그 책임을 맡았다.

옛 선사가 '죽은 해니 새해니 하지 마라 새해라 해서 오늘 아침 듣는 해가 어찌 다르더니?'라고 했지만 그래도 평범한 사람들은 새해라 하면서 마음가짐도 고치고 새로운 희망도 꿈꾸곤 한다. 더군다나 조직개편 후 처음 맡는 자리가 홍보이다 보니 더욱 큰 의미로 다가온다.

흔히들 홍보를 꽃에 비유한다. 씨앗이 싹을 틔우고, 뿌리를 내리고, 비바람 견디고 나서 피워 올리는 꽃. 홍보가 제 구실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그 사이 씨와 잎과 줄기 뿐만 아니라 이겨낸 성과가 허사가 되는 것이다. 긴 시간 준비해서 꽂을 피우고, 꽂 진 자리에 열매가 맺어 그 자리 그대로 다시 시작이 되는 것이니, 홍보가 처음이자

그렇다면 성공하는 홍보는 무엇일까? 완전한 소통이 바른 홍보라 생각한다. 상대방 마음을 열고, 마음에서 마음으로, 마음과 마음이 함께 울리는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인정하고 이해하고 공감하는 것이 참 흥보인 것이다.

조선의 학자 율곡 이이(李珥)는 주장하기를 "언로(言路)가 열리고 또는 좁아지고 하는 것에 국가의 흥망이 달려있다"라고 말한 바 있다. 이처럼 언론홍보는 예부터 중요시되어 왔다.

요즈음 홍보의 중요성이 과거 어느 때보다 더욱더 강조되고 있다. 이는 엄청난 정보가 쏟아지는 시대적 상황에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홍보전략이 수반되지 않으면 결국 어떤 정책도 제대로 구현되기 어렵기 때문이다. 더구나 교육관련 정책은 실제의 정책 수립 목적과 달리 오도되는 경우가 많아서, 교육당국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정확히 교육공동체에 홍보하지 않으면 오히려 불필요한 일을 한다거나,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고 오해받기 쉽다. 미래 교육을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얼마나 전력을 다해서 하고 있는지를 알려 교육에 대한 만족도와 신뢰도를 높이고 동참할 수 있도록 글씨내야 하는 것이 언론홍보의 목적이다.

우리의 미래는 교육에 있다. 지역의 미래, 국가의 미래가 교육에 있다. 어느 한 때도 교육이 중요하지 않은 때가 없었지만 지금 전남교육은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다. 저출산과 이동 현상으로 자꾸 학생이 줄어들고 학교가 쇠퇴해지는 위기 상황에서,

전남교육이 새롭게 변모하기 위해 청렴을 제일 우선으로 삼고 '소통과 협력으로 함께하는 전남교육'으로 열악한 환경을 극복하고 행복한 미래교육을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현장에서 교육에 전념하며, 어렵고 힘든 조건에서 꿈을 키우는 우리 모두를 위해 전남 교육의 꽃은 아름다운 모습을 그대로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 열심히 피워낸 노력이 헛되지 않게 충분히 보여주고, 알리고, 알찬 열매를 맺을 수 있게 해야 한다.

학생을 위해, 학생과 함께 꽂을 키우며 모든 곳에서, 모든 시간에 무한한 가능성과 밝은 희망을 열어준다. 그에 맞춰 전남교육의 모습을 바르게 알리고, 교육가족과 진솔하게 소통하는 전남교육의 꽃으로서, 모두와 함께하는 바른 홍보를 위해 '눈을 밟으며 들길을 갈 때 반드시 함부로 걷지 마라. 오늘 내가 남긴 발자국이 뒤에 오는 사람에게는 이정표가 될 것이니'(踏雪野中去, 不須胡亂行. 今日我行蹟, 遂作後人程)라는 그 옛날 선사의 글귀를 읊으며 오늘 걷는 나의 길에 더욱 힘을 싣는다.

◇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독자투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등 어떤 내용의 원고나 사진, 만화, 만평도 환영합니다. 채택된 원고는 고료를 지급합니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501-7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70-2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2200-6288/팩스 062-4918/e-mail opinion@kwangju.co.kr

인터넷에서 만나는 광주일보

www.kwangju.co.kr

社說

중국어선 불법조업 근절책 말 뿐이니

지난 15일 오전 가거도 남서방 14마일(22km) 인근 EEZ 우리 측 해역에서 서해어업지도선이 불법조업 중이던 중국 어선을 발견, 단속에 나섰으나 주변에 있던 중국 어선 6척이 지도선을 에워싸고 갈, 낚, 해머 등으로 저항하는 바람에 제압에 실패했다. 어업지도선이 우리 해역에서 죽거나는 '굴욕'을 겪은 것이다.

지난해 4월 30일에는 신안군 홍도 부근 해역에서 서해어업관리단 소속 감독 공무원 4명이 중국의 불법어획물 운반선을 검문하려다 변을 당했다. 중국 선원들이 흥기를 휘둘러 3명이 중경상을 입었고, 1명은 바다에 빠졌으나 다행히 구조됐다.

그런데 정부는 사건이 터질 때마다 대책 마련 등 부산을 떠났지만 대부분 미봉책이 그쳤다. 오히려 방기하고 있다는 표현이 더 어울린다. 정부는 당장 단속 인력 확보와 지도선 확충 등에 나서야 한다. 우리 단속 대원들이 언제까지 생명을 담보로 단속에 나설 것인가.

그런데 정부는 사건이 터질 때마다 대책 마련 등 부산을 떠났지만 대부분 미봉책이 그쳤다. 오히려 방기하고 있다는 표현이 더 어울린다. 정부는 당장 단속 인력 확보와 지도선 확충 등에 나서야 한다. 우리 단속 대원들이 언제까지 생명을 담보로 단속에 나설 것인가.

실효성 의문시되는 광주 학력제고 방안

학력 신장에 비상이 걸린 광주시교육청이 지난해 이어 또다시 학력제고 방안을 내놓았으나 실효성이 논란이 일고 있다. 대부분이 기초학력 부진 학생에만 집중돼 있고, 중위권 이상 학생을 위한 방안은 거의 없다는 것이다.

시교육청은 최근 개발한 '학교교육력 제고사업 매뉴얼'에서 초·중·고에 따라 별도의 기초학력 향상 방안을 제시했다.

이의 시행을 위해 현재 교감과 교사 등을 대상으로 연수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또 학력 제고 중점학교를 지정, 예산 집중 지원으로 학교 교육력과 학생·부모 만족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초등학교는 부진 유형별 지도 등으로 기초학력을 높이고 중·고교는 학습기초력 향상을 위해 전담부서 조직, 학습 부전 탈출프로그램 운영 등을 하게 된다.

이는 지난해 고교 2학년의 주요 과목 학업성취도가 크게 하락하고, 초·중·고 기초학력 미달비율이 높아진 데 따른 비상 대책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기초

학력 신장에 비상이 걸린 광주에서는 부진 학생을 위한 대책이 거의 없다는 문제다. 게다가 학력제고 중점 학교 사업의 경우 초·중·고 78개교에 16억 원을 나눠주고, 세부계획은 학교에서 정하고 부산을 떠나는 경우에 단속에 집중돼 있다.

시교육청은 최근 개발한 '학교교육력 제고사업 매뉴얼'에서 초·중·고에 따라 별도의 기초학력 향상 방안을 제시했다. 이의 시행을 위해 현재 교감과 교사 등을 대상으로 연수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또 학력 제고 중점학교를 지정, 예산 집중 지원으로 학교 교육력과 학생·부모 만족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초등학교는 부진 유형별 지도 등으로 기초학력을 높이고 중·고교는 학습기초력 향상을 위해 전담부서 조직, 학습 부전 탈출프로그램 운영 등을 하게 된다.

이는 지난해 고교 2학년의 주요 과목 학업성취도가 크게 하락하고, 초·중·고 기초학력 미달비율이 높아진 데 따른 비상 대책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기초

학력 신장에 비상이 걸린 광주에서는 부진 학생을 위한 대책이 거의 없다는 문제다. 게다가 학력제고 중점 학교 사업의 경우 초·중·고 78개교에 16억 원을 나눠주고, 세부계획은 학교에서 정하고 부산을 떠나는 경우에 단속에 집중돼 있다.

시교육청은 최근 개발한 '학교교육력 제고사업 매뉴얼'에서 초·중·고에 따라 별도의 기초학력 향상 방안을 제시했다. 이의 시행을 위해 현재 교감과 교사 등을 대상으로 연수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또 학력 제고 중점학교를 지정, 예산 집중 지원으로 학교 교육력과 학생·부모 만족도를